

포천사회 知識人 ⑤2

경북대학 김 영 수 교수

# 경량콘크리트 개발 위해 흙을 이용 자갈 생산 연구

## 경북레오클럽 포천사회에 奉仕활동 지속적으로 추진

“一切唯心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다 마음의 생각에 달렸다는 뜻으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되거나 안되거나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원효대사가 어느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어둠 속에서 물을 마셨는데 다음 날 깨어보니 자신이 마신 물그릇이 시체가 써어있는 사람의 해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일체유심조’를 평소 좌우명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경북대학 건축과 김영수(48·사진) 교수는 건축구조를 전공했다.

1995년 경북대학에 부임한 김 교수는 부산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에서 성장해 우이초등학교, 서라벌 중학교, 용문고등학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석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수는 1986년 대도종합건축사 사무소, 1990년 쌍용엔지니어링에 입사해 경북대학에 부임하기 전까지 8년 동안 건축구조 및 설계담당 업무를 처리한 실무경력이 있다.

김 교수가 전공한 건축구조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8년간 실무로 포천시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왕산사, 포천반월아트홀, 청소년회관 심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또 경북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경북레오클럽 지도교수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포천 사회의 소외된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은 물론 매년 사회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레오클럽은 경북대학 학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 8회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가을에 개최되는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에도 진행봉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반월문화제 행사 안내 및 진행봉사, 남사당선교원, 포천성당, 봉사사 등 종교단체 활동에도 봉사하고 있다. 시험기간을 제외한



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원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김 교수가 경북대학에 강의하는 과목은 건축구조역학, 졸업설계, 철골구조 등이며 학생들이 실제로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소홀 고모리 조각사실, 포천일고 증축, 하나로마트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공과 관련해 포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일에 대해 김 교수는 포천지역 설계사무소 직원 중 50%는 경북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경북대 출신들이 지역을 지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과의 긴밀한 유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학생으로서 수강신청을 한 과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김 교수는 과목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고 강의 후에는 학생들의 설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한 결과 학생 30~50%가 F학점을 받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관련 학교행사로는 경북대학 학술제에 졸업작품전시회를 하고 있다. 아트분야의 졸업작품전시회는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학분야 졸업작품전시회는 경북대학이 1996년부터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교수는 건축소재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에 필요한 자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경량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흙을 소재로 하여 자갈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차 연구를 통해 성과가 좋았다. 압축강도 실험이 남아 있다. 계속해서 실험을 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신문을 통해 포천지역에 관한 소식은 물론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의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다고 밝히고 포천반월아트홀 예술공연, 전시 활동에 대한 보도와 포천의 특산품에 대해서도 보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건축학회, 포천시 건축심의위원회, 포천시 수질관리위원회, 산업인력관리공단 건축기사 및 산업기사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연천군 사전제해 영향성 검토위원,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건교부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민간투자사업 평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은 다음과 같다.

- ▶건축기사 2급 문제 및 해설(문운당, 1994)
- ▶건축구조역학(건기원, 2000)
-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건기원, 2001)
- ▶철골구조(문운당, 2004)
- ▶철근콘크리트 보의 설계용회모멘트와 전단력에 관한 연구(석사 위논문, 건국대학교, 1986)
-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에 따른 풍하중과 지진하중의 영향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대한건축학회, 1988)
- ▶구조물의 붕괴 거동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1995)
- ▶부동침하를 고려한 구조물의 응력해석(대한건축학회, 1995)
- ▶RC보와 기둥의 단면력에 관한 연구(경성전문대학, 1997)
- ▶학교건물의 구조공법에 따른 경제성 비교연구(경북대학, 1998)
- ▶철근콘크리트기둥과 철골보로 이루어진 혼합구조의 외부접합부 개발(대한건축학회, 2001)
- ▶철근콘크리트기둥과 철골보 혼합구조 접합부의 거동에 관한 연구(경북대학, 2001)
- ▶철근콘크리트기둥과 철골보 접합부의 휨성능(한국구조물진단학회, 2001)
- ▶철근콘크리트기둥과 철골보 접합부의 거동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2)
- ▶RCS구조의 외부 접합부 개발에 관한 연구(경북대학, 2002)
-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의 흡음성능을 위한 기초적 연구(경북대학, 2005)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취재파일

# 정책협의체 구성으로 지역통합 이뤄야

## 집중인터뷰 8명의 지역 유력인사들의 공통의견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본지는 지난 5월10일부터 7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 포천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포천사회의 특징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문제,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응한 유력인사들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교통문제를 지적했다. 또 교육문제를 비롯한 한미FTA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육성, 미군공여지 피해문제, 포천시 공직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했다. 또 이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인사들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포천사회의 특징이다. 과거 포천사회는 배타성이 강한 사회였으나 현재는 거의 없어졌다. 토박이로 지칭되는 원주민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 3P로 지칭되던 포천출신이 아니면 단체장이나 여타 선출직에 진출할 수 없다는 의식은 사라졌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실시되면서 소 지역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 선출방식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갈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천사회의 배타성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가 남아 있기는 해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다.

두 번째 포천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긍하는 입장이다. 지역의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한 원인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원로들을 모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천사회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거나 연속성이 떨어진다.

선거철 혹은 명절에는 노인들을 찾아 인사를 하지만 정작 노인이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러한 원인은 각종 선거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합장 선거에서부터 시도의원 선거, 단체장,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선출직에 입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위해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의 평가가 만연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아울러 포천지역 사회에는 활성화된 시민단체가 없다. 지역사회에 울긋불긋한 얼룩을 지워주는 시민단체가 없다보니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과 집행이 있을 뿐 사후평가는 거의 없다. 결국 '갑주도형 사회'가 되고 선출직들의 비난을 싫어해 잘못된 점을 이끌어내고 시정을 권고할만한 단체가 없다.

현직에서 물러난 정치원로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다. 포천사회에서 구심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 잘못된 정책이나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만한 순수시민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갈등이다. 지역사회 갈등 원인은 각종 선거로 인한 것이고 그 중에서 시장과 국회의원의 갈등이 가장 큰

갈등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또 더 큰 문제는 시장과 국회의원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행동은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원인이 된다. 이들의 인격적인 비하 발언이나 진위와 관계없는 소문을 흘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다음 선거를 의식해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하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갈등으로 인해 포천지역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출직은 각자 해야 할 몫이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안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지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천시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포천비전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한 단기계획을 비롯한 중기 및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천미래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해야 하고 국회의원 역시 포천시장이 제시한 현안문제와 포천미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적극 활동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출직 공직자들이 일로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누가 시민을 대변하고 시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서로 협력한다고 해서 자신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낙후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특정한 것을 거론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순수한 시민단체를 형성해 선출직 공직자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역현안문제다. 포천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교통문제다. 인근 시군에 비해 도로망 건설이 지연되거나 혹은 동서축과 남북축 도로망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이 출퇴근과 관광객 감소, 물류비 증가로 인해 기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계획된 도로망이 구축된다면 지역의 교통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지칭되는 도로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게 문제다. 또 지역의 교육문제가 지적됐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의정부 혹은 다른 도시로 진출 가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을 찾든지 혹은 특목고 등의 유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이밖에도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문제, 미군공여지역 피해문제, 노인복지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같은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 다음 선거에 대한 의식보다는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서로 협력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심판받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이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포천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책협의체 정기모임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와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오피니언 리더 정책협의체를 통한 현안문제 논의는 지역통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경기북부 5개 시군 뉴스 제공에 감사·지역특산품도 소개해 주길

# 뉴라이트포천연합 개소

## 뉴라이트포천연합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날까지 뉴라이트포천연합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뉴라이트 정신으로 포천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2-6 진명빌딩 3층

◇ 연락처 : 031) 533-5946~7

